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5.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노르웨이 검찰, 모스크 총격 테러범에 징역 21년 구형
 - 5.21 노르웨이 검찰은 '19.8월 모스크 밖에서 총격을 가하고 입양된 중국계 여동생을 살해한 극우 극단주의자 「필립 만스하우스」(남, 22세)에게 살인과 테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1년을 구형
 - * 모스크에는 무슬림 3명이 있었으나 사상자는 未발생
- 러시아, '암호화폐 금지' 법안 제정 추진
 - 5.22 현지언론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△자국내 디지털화폐 발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과 △디지털자산의 불법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형사처벌 도입 법안 2건을 러시아 하원에 전달하였다고 보도
 - * 「아닐라 데나야」 장관은 “법안이 기술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자금세탁·테러자금지원 등 위험요인은 완화할 수 있다”고 강조

미주

- 美, 플로리다-텍사스 해군기지 테러사건 연관성 수사
 - 美 FBI는 텍사스 코퍼스 해군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및 총격 사건(5.21)*이 지난 12월 발생한 플로리다 해군기지 테러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
 - * 괴한이 해군기지로 차량돌진 중 경계병에게 총격을 가하다가 사살
- 美 IT기업, 하원에 정보당국의 인터넷 사용기록 열람 제한 요청
 - 트위터 등 IT기업은 정보당국이 영장없이 인터넷 사용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「자유법」(Freedom Act) 재승인案*의 상원 통과에 반발, 하원에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을 요청
 - * 미국은 9.11 테러 이후 애국자법(Patriot Act)을 제정, 2015년 무차별적 전화 감청을 제한하는 자유법으로 대체, 재승인시 2023년까지 효력 유지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테러단체 라쉬카르-에-타이바(LeT) 지휘관 제거

- 인도 현지언론은 잠무카슈미르 연합보안군이 대테러 합동작전으로 카슈미르 계곡에서 활동하며 여러 테러에 관여해온 파키스탄 테러 단체 '라쉬카르-에-타이바'^{*}(LeT)의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보도

중 동

○ 이라크, ISIS 지도부 핵심인물 「카르다시」 검거

- 5.21 이라크 정보당국은 ISIS 지도부 중 핵심 인물인 「압둘 나세르 카르다시」를 검거했다고 발표, 同人은 '19.10 사망한 ISIS 지도자 「알 바그다디」의 후계자 후보였으며 '파괴자'라는 별명을 보유
 - * 「알 바그다디」 사망 직후 주요 외신은 同人을 후계자로 예상하였으나, 실제로는 「알 쿠라이시」가 ISIS 새 수장으로 선임

○ 시리아, 라마단 기간 중 ISIS 공격 43건 발생

- 5.22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라마단 시작(4.23) 이후 시리아 내에서 ISIS의 공격이 총 43건 발생했으며, 이중 데이르에조르주 동부지역에서 32건이 발생하고 2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
 - * ISIS는 '19.3월 패퇴 이후 데이르에조르에서 홈스에 이르는 사막 지역으로 공격 국한

아프리카

○ 코트디부아르-부르키나파소, 대테러 합동작전 실시

- 5.25 코트디부아르軍은 5월 초에 시작된 부르키나파소와의 대테러 합동작전을 통해 양국의 접경지역인 페르케 북동쪽과 반포라 남쪽 지역에서 테러용의자 8명을 사살하고 38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

벨기에 유대박물관 총격 테러

- '14.5.23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유대박물관에서 총격 테러 발생
 - 15:50경 테러범은 유대박물관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, 이스라엘 부부·프랑스 여성·벨기에 청년 등 4명이 사망
 - 벨기에 총선과 유럽의회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同 테러는 반유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, 벨기에 정부는 사건 직후 유대인 지역의 대테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계를 강화
- 알제리계 프랑스 국적의 테러범 「메흐디 네무쉬」는 범행 1주일 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체포
 - 同人은 ISIS 추종자로 '19.3.11 벨기에 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
 - * '13년 시리아를 방문해 지하드 훈련캠프 및 전투에 참가
- 同 사건은 ISIS의 유럽대륙에 대한 연쇄 테러공격의 신호탄으로 평가
 - * 이후 ISIS는 '15.11월 파리 총격테러, '16.3월 브뤼셀 자폭테러 등 자행

< 시리아 인권관측소(SOHR) >

- (명칭) 시리아 인권관측소(SOHR,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)
- (설립) 시리아에서 세 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던 수니파 「라미 압둘 라흐만」이 영국으로 망명한 후 '06.5월 창설
- (소재지) 英 코번트리
- (주요 가치) 민주주의 · 자유 · 정의 · 평등
- (목적) 시리아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시리아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, 세계에 시리아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활동
 - ※ 同 단체는 어떠한 정치 단체나 정당, 국가권력과도 연계되지 않은 비영리 기구(NPO)라는 점을 강조